

광주시 미래먹거리 국비 과제 발굴 총력

29일까지 공모...반도체 등 9대 대표산업,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2017년부터 202건 발굴...미래차·소부장 단지 등 42건 선정 성과도

광주시가 인공지능 등 지역 미래먹거리를 접목한 경쟁력 있는 신규 국비 과제 발굴에 나선다.

광주시는 “오는 29일까지 지역 내 혁신기관, 대학, 병원,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정부 산업육성 정책에 부합하고 광주 9대 대표산업 등 특화 분야와 미래 먹거리를 접목할 수 있는 신규 국비 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지원 과제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발굴대상 산업분야는 반도체, 데이터, 모빌리티, 인공지능, 문화콘텐츠, 에너지, 메디헬스케어, 스마트부품, 광·가전 등 지역 9대 대표산업과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다. 자세한 기획지원 과제 모집 공고문은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산업육성 정책과 흐름을 같이 하고 국비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과제를 선별해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과제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선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과제 기획을 3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기획이 완료된 과제가 향후 국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정부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광주시는 2017년부터 지역 미래먹거리 과제 발굴을 위한 별도 기획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 국

비과제 발굴과 지역 산업 육성에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202건의 미래먹거리 과제를 발굴했으며, 기획 지원을 통한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자율주행차부품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등 지역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대형사업 등 총 42건의 국비 과제 선정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다. 관련 국비 확보액도 총 5966억원에 이른다.

광주시는 올해에도 기획과제 공모를 통해 지역의 기획 수요를 확대 발굴하고,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채종환 광주시 미래산업총괄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미래먹거리 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 공모 과제들이 지역 미래 먹거리의 씨앗이 되고, 지역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는 과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9일 나주 산포면 산림연구원 치유센터에서 집행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목표대와 순천대의 의대 설립 정부 추천 공모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국립의대 설립 공모, 지역 대학 참여를” 전남 골프장 농약 잔류 검사

범도민추진위, 목포대·순천대 참여 촉구...“염원 실현 유일 해법”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는 9일 전남도산림연구원에서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목포대와 순천대의 공모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건의문을 내고 “전남보다 인구가 적은 전북에 2개, 충북에 2개, 강원도에 4개 의과대학이 있지만,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면서 “정부에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공모만이 도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할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통령 말씀과 국무총리 담화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속한 신설 방침 확정을 건

의하는 한편, 지역과 정치권에 지역의료체계 완결과 전 도민의 건강권 확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남도 정부 추천 공모에 성원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박종 공동 집행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킬 전라남도 국립의대가 설립되도록 범도민추진위 온 도민의 역할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했다.

범도민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는 범도민추진위를 이끄는 중심 기구로 의료계, 경제계, 학계 등 대표 13명으로 구성됐다. /김지우 기자 dok2000@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골프장 인근지역 환경피해 예방과 이용객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2024년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에 나선다.

농약잔류량 검사는 환경부의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건기(4~6월)와 우기(7~9월), 2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내 골프장에서 다양 사용 중인 클로로탈로닐(살균제)을 신규 검사 항목으로 추가했다.

농약 사용량이 많은 7~9월 중 한 번 더 시료를 채취해 정밀 분석한 결과를 환경부와 전남도에 통보해 농약 사용에 따른 주변 환경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지역구 안배 없는 ‘광주시의회 원 구성’

북구 1~3, 의장·상임위원장 독식...북구 4~6, 3명 모두 교육문화위 배정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상임위원회별로 지역구 안배가 고려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숙제’인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상임위원 안배가 관건인데,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특정 지역 의원들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거나 한 상임위에 모두 몰려드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까지 의장·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 선임을 마쳤다.

의장에는 신수정(민주·북구3) 의원이, 제1부의장에는 서용규(민주·비례) 의원이, 제2부의장에는 채은지(민주·비례) 의원이 선출됐다.

앞서 시의원 23명 중 민주당 소속이 21명인 만큼 민주당 광주시당 자체적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결정, 시의회 선거에 출마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1일 치러지는 상임위원장 선거에는 행정자치위원장 안평환(북구1)·환경복지위원장 최지현(광산구1)·산업건설위원장박필순(광산구3)·교육문화위원장 명진(서구2)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16일 예정된 의회 운영위원장 후보로는 정다은(북구2) 의원을 선출한 상

태다. 사실상 모든 상임위원장이 결정된 셈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구 편중 현상이 심해 지역 안배 배려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구갑’으로 분류되는 북구1~3 지역구 의원들이 의장을 비롯한 행자위, 운영위원장 두 자리를 독식할 가능성이 크다.

또 교육문화위원회에는 ‘복구골’ 선거구인 북구 4~6 지역구 의원 3명이 모두 배정됐다. 이는 상임위원 선임 과정에 지역별 안배 없이 ‘제비뽑기’를 하는 촌극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인기 상임위원 교문위에 많은 의원들이 희망함에 따라 정치적 고려와 지역별 안배 등을 해야 했음에도 단순하게 ‘제비뽑기’로 상임위원을 선정하면서 북구를 지역의 시의원 3명 모두가 교문위로 배정된 것이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역구 안배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특정 지역구에 편중되는 현상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시의회 안팎의 지적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경우 상임위에 골고루 배치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필수적이지 않다”면서도 “지방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특정 지역구에서 이른바 ‘독식’ 현상을 보이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광주 유통 농산물 1.7% 잔류농약 초과

열무 등 상반기 513kg 압류·폐기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올 상반기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38건, 총 513kg을 압류·폐기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원은 시민이 많이 소비하거나 농약 허용기준을 자주 초과했던 품목을 위주로 서부·각화 농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2256건에 대해 잔류 농약 340항목을 검사했다. 열무, 쑥갓, 부추, 파 등 23개 품목 38건

(1.7%)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살충제 포레이트(6건), 살균제 다이니코나졸·프로사이미돈(3건), 제초제 펜디메탈린(3건) 등이 기준을 넘겨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을 폐기하고 생산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주·야간 철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김장용 배추 대체작목 ha당 450만원

예산 절감·수급 안정 효과...다음달 9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전남도가 지난해 김장용 배추 적정 생산 유도 등 수급 안정 대책으로 추진한 배추 작목전환 지원사업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 올해도 이를 지속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최근 2년간 배추를 재배했다가 다른 작목을 선택하면 ha당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장 문화의 소량·연중화, 국민 1인당 김치 소비량 감소 등으로 배추 소비량은 줄어든 반면, 최근 10년간 전국 가을·겨울배추 재배 면적은 약 1만7000ha를 유지하고 있어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한 적정면적 유지가 필요하다.

실제 전남도는 지난 2023년 배추 작목전환 사업(350ha·16억원)을 추진한 결과 2022년 배추 산지 폐기(359ha·53억 원)와 비교해 3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수급 안정과 가격 지지 효과도 특특히 높일 수 있었다.

이에 전남도는 올해도 적정 재배면적 유도를 위해 배추 대체작목 전환사업으로 18억원(400ha)을 지원한다. 이는 농가의 높은 호응과 효과에 따라 지난해보다 50ha 늘어난 규모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까지 최근 2년간 배추를 재배했던 필지로, 이를 휴경하거나 유채, 귀리, 메밀 등 타 작물로 바꾸면 1ha당 4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2ha다. 다만 수급 불안 품목인 마늘, 양파, 대파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사업을 바라는 농업인은 오는 8월 9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